

비주얼 씩킹과 윈도우 패닝을 적용한 간호윤리와 전문직 교과목 수업개선에 관한 실험연구

최한나, 김수현*
남부대학교 간호학과

An Action Research to Improve Nursing Ethics and Professional Course using Visual Thinking and Window Panning

Hanna Choi, Suhyun Kim*
Department of Nursing, Namb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비주얼 씩킹과 윈도우 패닝을 적용한 간호윤리와 전문직 교과목 수업개선의 실행과정과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통합연구방법설계의 실험연구이다. 이 연구는 G시 소재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 중 114명을 대상으로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 이루어졌다. 실험연구에 대한 개념적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양적·질적 접근을 통해 통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양적접근으로는 윤리적인사결정 자신감, 생명의료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을 설문지를 통해 평가하였고, SPSS WIN 23.0 program 으로 분석하였다. 질적 접근으로는 수업참여에 대한 경험을 개방형 질문을 통해 면담하고 전사된 자료는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비주얼 씩킹과 윈도우 패닝을 적용한 결과 윤리적인사결정자신감($t=6.748, p<.001$), 간호전문직관($t=-3.52,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으나 생명의료윤리의식($t=1.291, p=.199$)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질적분석 결과, 신선한 경험, 낯설지만 편안한 느낌, 내것이 되어감, 부족한 시간, 이론 기반의 체계적인 사례연구 접근, 토의토론을 통한 협력과 조정능력함양, 다양한 전문직 분야에 대한 체감, 자긍심, 윤리적 책임의식, 학습내용의 현장적용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얼 씩킹과 윈도우 패닝을 적용한 교수법은 간호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역할을 함양하고 통합적인 학습이 일어나도록 돕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간호핵심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타교과목의 수업개선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is an action research study of mixed methodology design to confirm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effects of applying visual thinking and window panning on improving nursing ethics and professional courses. Based on the conceptual model for action research,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 was taken. The data was collected and analyzed in an integrated manner. The survey analysis was done using the SPSS WIN 23.0 program. The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after experiencing the techniques in class and content analysis was used on the answers. As a result of applying visual thinking and window panning,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t=6.748, p<.001$) and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t=-3.52, p<.001$)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There was, however, no significant change in biomedical ethics consciousness ($t=1.291, p=.199$). Qualitative analysis found that they had fresh experience, an unfamiliar but comfortable feeling, feeling of being mine, insufficient time, systematic case study approach based on theory, were able to cultivat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bility through discussion and experience in various professional fields, pride, ethical responsibility consciousness and were able to apply learning content in the field. Visual thinking and window panning foster diverse competencies in nursing education and help integrative learning.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it is proposed that visual thinking and window panning are applied to the improvement of instruction in other courses to develop core nursing competency.

Keywords : Visual Thinking, Window Panning, Action Research, Ethical Decision-making, Biomedical Ethics Consciousness, Nursing Ethics, Nursing Professionalism

본 논문은 2020년도 남부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uhyun Kim(Nambu Univ.)

email: ksh136112@gmail.com

Received November 13, 2020

Revised December 9, 2020

Accepted March 5, 2021

Published March 31,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급격한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간호사들은 매우 복잡적이고 다양한 윤리적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1]. 또한 사회적으로 간호사의 전문성이 인정받게 됨에 따라 간호사에게는 주도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2]. 따라서 임상현장의 간호사들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3].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간호핵심역량 중 하나로 법적·윤리적 책임인식능력을 선정하였으며[4], 이 역량은 간호사가 환자의 옹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5-7]. 국내 간호대학에서는 정규교육과정 내에 간호윤리와 전문직 교과목을 개설하고 이와 관련된 간호핵심역량을 함양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6]. 하지만 정규교육과정에서 간호윤리가 다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교과목의 운영방식에 따라 그 효과의 차이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간호윤리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과목 개요, 교육내용과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교수학습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8].

선행연구에서는 국내 간호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수학습방법으로 시뮬레이션 35.5%, 문제중심학습 16.8%, e-learning 10.2%, OSCE/CPX 9.0%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간호윤리와 전문직 교과목의 특성을 살펴보면, 기존에 활용되어 왔던 질환과 관련된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문제중심학습, OSCE/CPX 등의 교수학습방법보다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간호윤리와 전문직 교과목을 운영하는 교수자는 본 교과목의 중요한 학습성과로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이 융합되어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5]과 현 시대에 간호교육을 받는 학습자들이 그림이나 영상과 같은 이미지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9-11].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간호교육에서는 이미지 기반의 교수학습방법이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미지 기반 학습법 중 하나인 비주얼 씩킹(Visual Thinking, VT)은 텍스트보다 더 직관적인 경험과 지식을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를 활용한 학습전략이다. 자신의 생각을 글이나 이미지 등을 통해 표현하고,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며 나누면서 기억력과 이해력을 키우는 시각적 사고방법이다[12]. 수학, 과학과 같은 이공계열 교과

목, 미술이나 음악 등과 같은 예체능 계열 교과목 등 다양한 교과목에서 비주얼 씩킹을 활용한 교육이 시도되고 있다[10-12]. 비주얼 씩킹은 국내 간호교육에서 학생들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능력,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능력의 향상 등에 효과를 나타냈다[11,12]. 국외 간호교육에서는 비주얼 씩킹을 통해 학생들이 동료들과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학습을 하면서 학습전략들을 발전시켜왔다[11,12].

또 다른 이미지 기반 학습법으로 윈도우 패닝(Window Panning, WP)이 있다. 이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정보를 그림으로 떠올리며 그림은 글보다 선명하고 오래 기억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12]. 윈도우 패닝은 학습한 내용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수업의 마무리 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사용된 상징 기호나 의미 단어 등은 학생들의 기억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12]. 윈도우 패닝의 핵심은 손을 이용하여 그린 간단한 그림이기에 각자 자신의 윈도우 안에 스스로 자기의 것을 채우도록 해야 기억력을 높여준다는 것이다[12].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간호윤리 교육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집중된 전통식 강의 형태로 이루어진다[5]. 일방향적 강의식 교육만으로는 습득한 지식을 임상현장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습득된 지식과 경험이 융합되어 오랫동안 기억되고 자신의 것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수학습방법이 요구된다[10].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윤리와 전문직 교과목에서 기존의 교수학습전략에 이미지 기반 학습법을 접목시켜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며, 그 효과평가를 교수자와 학습자가 연구의 '주체'가 되어 '수업개선'이라는 공통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방법으로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개선하는 과정과 그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실험연구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13]. 실험연구 방법이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이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연구방법이다[13].

이에 본 연구는 비주얼 씩킹과 윈도우 패닝을 간호윤리와 전문직 교과목에 적용한 수업개선 과정과 효과를 양적, 질적으로 혼합한 실험연구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비주얼 씩킹과 윈도우 패닝을 적용한 간호윤리와 간호전문직 교과목 수업개선의 실행과정

과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주얼 씩킹과 윈도우 패닝을 적용한 간호윤리와 간호전문직 교과목 수업개선'에의 실행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비주얼 씩킹과 윈도우 패닝을 적용한 간호윤리와 간호전문직 교과목은 참여자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가?', 셋째, '비주얼 씩킹과 윈도우 패닝을 적용한 간호윤리와 간호전문직 교과목에서 참여자들의 경험은 무엇인가?'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비주얼 씩킹과 윈도우 패닝을 적용한 간호윤리와 전문직 교과목 수업개선의 실행과정과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통합연구방법(mixed research methods)설계의 실행연구이다[14]. 본 연구는 실행연구에 대한 Zuber-Skerritt와 Fletcher의 개념적 모형[13]을 기반으로 하여 계획, 실행, 평가, 성찰 단계를 거치면서 양적·질적 접근을 통해 통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14].

2.2 연구참여자 및 연구기간

본 연구는 G시 소재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 중 간호윤리와 전문직 교과목 첫 수업에서 수업개선을 위한 실행연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1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간호윤리와 전문직 교과목 수업개선의 실행과정에 관한 연구로서 수업개선을 위해 준비하며 계획하는 2월부터 시작되어 학기가 종료된 후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9월까지 이루어졌다.

2.3 자료수집 및 분석

2.3.1 양적접근

(1) 연구도구

· 윤리적의사결정 자신감

윤리적의사결정 자신감은 간호사가 윤리적 의사결정을 자신있게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15]. 본 연구에서는 Sulmasy, Geller 와 Levin [15]이 개발한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Scale(PECS)을 Laabs [16]가 수정·보완하여, Kim [17]이 우리말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매

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윤리적의사결정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aabs [1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6$, Kim [1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5$ 였다.

· 생명의료윤리 의식

생명의료윤리의식은 건강과 관련된 맥락 및 생물학과 관련된 것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 과정의 도덕적 차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18]. 본 연구에서는 Lee [19]가 고안한 윤리적 가치관 설문지를 Kwon [20]이 생명의료윤리 의식으로 수정한 것을 Jung [21]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태아의 생명권 3개 문항, 인공수정 3개 문항, 태아진단 2개 문항, 신생아의 생명권 2개 문항, 장기 이식 2개 문항, 뇌사 2개 문항 등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찬성' 4점, '대체로 찬성' 3점, '대체로 반대' 2점, '반대'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ung [2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6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0$ 였다.

·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신념, 관념을 의미한다[27]. 본 연구에서는 Yeun et al. [22]가 개발한 도구를 Kim [23]이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하위영역은 전문직 자아개념(6문항), 사회적 인식(5문항), 간호의 전문성(3문항), 간호계의 역할(2문항), 간호의 독자성(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표현된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으로,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8$ 였다.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8년 2월에서 9월까지 8개월간 이루어졌으며, 총 141명을 대상으로 주 1회 2시간씩 총 15주간 수업이 운영되었다. 이에 첫 주와 마지막 주에 비주얼 씩킹과 윈도우 패닝을 적용한 간호윤리와 전문직 교과목 수업개선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프로그램으로 유의수준 $p < .05$ 로 설정하고, 일반적 특성과 학과 만족도 등을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윤리적인 사결정자신감, 생명의료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는 기술통계,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로 분석하였다. 또한, 비주얼 씽킹과 윈도우 패닝을 적용한 간호윤리와 전문직 교과목 수업참여 전·후의 윤리적 사결정자신감, 생명의료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paired t-test 를 사용하였다.

2.3.2 질적접근

(1)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2월에서 9월까지, 개인면담, 참여관찰, 참여자 일지, 참여자의 결과물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개인면담은 중간고사를 마치고 강의운영 방식과 내용에 대한 중간평가, 개선점, 학기가 종료되고 전체적인 강의운영 방식과 내용에 대한 평가, 수업참여와 관련한 전후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반구조화된 면담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참여관찰은 매 수업을 본 연구자가 직접 운영하면서 작성한 일지에 기록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과제로 제출된 보고서에 나타난 연구참여자들의 성찰일지, 매 수업 종료시점에 비주얼 씽킹과 윈도우 패닝을 활용하여 만들어낸 참여자의 결과물, 강의평가에 나타난 주관식 문항들에 대한 답변 등도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다.

(2) 자료분석

비주얼 씽킹과 윈도우 패닝을 적용한 간호윤리와 전문직 교과목 수업개선의 실행과정과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질적자료의 분석은 내용분석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Krippendorff [24]가 개발한 내용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규명하였다. 그 후 자료의 성격에 따라 개념적으로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단위를 선택하는 표본 추출과정, 단위화된 자료에 대한 해석의 차이와 독립된 관찰, 상황적인 해석의 차이를 연결하는 기록과 코딩 단계, 많은 양의 자료를 대표적인 내용으로 줄이는 간소화 단계,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맥락적인 현상을 발견하는 추론단계, 연구결과를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단계를 거쳐서 계획, 실행, 평가, 성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24,25].

(3) 연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 [26]가 제시한 4가지 기준에 따라 질적연구의 엄밀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연구 수행과정에 있어서 참여자들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보이면서 그들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였다. 참여자들의 비주얼 씽킹과 윈도우 패닝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고정관념을 괄호처리(bracketing) 하고 참여자의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반 구조화된 개방적 질문이 적힌 성찰일지를 제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내용은 모두 녹음하였으며 이를 그대로 필사하여 분석하고 분석한 최종결과를 연구에 참여했던 5인에게 경험에 대한 서술이 명확히 분석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둘째, 적합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가 수업을 마친 뒤에 수업 운영에서의 경험을 기록한 일지와 분석적 메모를 통해 기록된 내용을 여러번 읽으면서 분석하였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연구참여자와의 경험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셋째, 감사가능성을 위해서 자료수집과정에 대한 설명, 연구자의 성찰일지, 연구참여자의 성찰일지, 제출된 결과물 등에 대해 기술하고 동료 연구자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분석을 시행하였다. 넷째, 확증성을 위해서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연구참여자들의 수업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를 반영하여 연구결과를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를 중립적으로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연구의 신뢰성, 적합성, 감사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확증성을 충족하였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수업개선에 관한 실험연구로서 수업개선의 실행과정과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자발적인 연구 참여를 독려하였다. 연구자는 간호윤리와 전문직 교과목이 운영되는 첫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수업개선을 위한 실험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하도록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 자료 수집, 비밀유지, 익명성 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도중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는 개인의 평가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참여를 동의한 자에게만 서면 동의를 받고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구 참여가 개별 학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수집된 자료는 성적산출 기간에 개방하지 않고 학기가 종료된 시점에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는 실행연구의 개념적 모형을 기반으로 하였으며[13] 비주얼 씹킹과 윈도우 패닝을 적용한 간호윤리와 간호전문직 교과목 수업개선의 실행과정과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계획, 실행, 평가, 성찰 단계에 따른 실행과정을 기술하고(Figure 1) 양적, 질적 접근의 형태로 통합하여 보여주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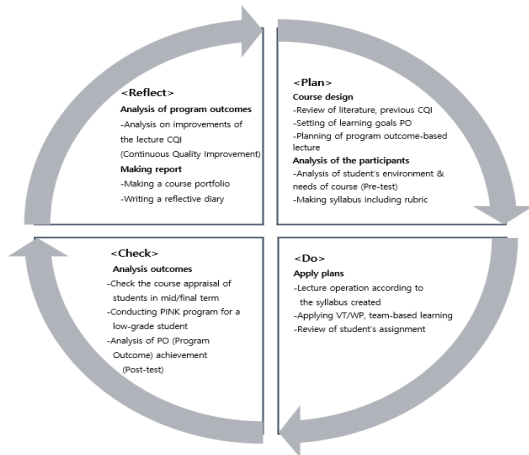


Fig. 1. Course design and contents based on PDCR

3.1 계획(Planning)

간호윤리와 전문직 교과목 수업 설계와 관련된 문헌고찰 후 Zuber-Skerritt와 Fletcher의 개념적 모형[13]을 수업 개선 연구의 방법론적 틀로 삼았다. 강의환경분석을 위하여 본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선수과목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남성 12.3%, 여성 87.7%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는 있음 34.2%, 없음 65.8%, 평균연령은 20.2세였다. 봉사시간은 66.74시간이고 이전에 윤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는 평균 .68(±1.45)회로 1회가 되지 않았다. 간호학과 전공 만족도는 5점 척도로 4.03(±0.8)점을 나타냈다.

선수과목은 전공 선택과 필수를 포함하여, 해부학, 영어, 창의적사고와 문제해결, 진로탐색과 비전업, Let's자기관리 및 진로탐색, 사회봉사, 생리학, 간호학개론, 미생물학, 의학용어로 구성되었다. 그 외에 사전 요구도 조사, 전년도 본 교과목 강의계획서, 수업자료,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분석보고서를 통해 수정·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을 확인하였다. 타 학교 유사교과목을 운영하는 교수들과 전화면담을 시행하였으며, 간호윤리

교육과 관련된 문헌과 실행연구 기반 수업설계에 관한 문헌을 고찰하였다.

최종적으로 대한간호협회와 한국간호과학회에서 제시한 학습목표[27] 및 학교의 학습목표, 학습 성과를 연계하여 성과기반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강의계획서에는 '간호전문직의 쟁점과 발전방향을 탐색한다.'등의 9개 학습목표를 기준으로 학습 성과 4개와의 연계성을 반영하였으며, 학습성과(Program Outcome, PO)의 수준과 반영률, 평가방법 등을 설정하여 작성하였다. 최종 강의 계획서 작성단계에서 본 교과목의 학습 내용이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학습을 돕고 다양한 역량함양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을 모색하면서[8,12] 동료교수와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14

Characteristics		Frequency(%)	M±SD
Gender	Male	14(12.3%)	
	Female	100(87.7%)	
Religion	Yes	39(34.2%)	
	No	75(65.8%)	
Volunteering activities(hours)			66.74
Frequency of Ethical Education(times)			.68±1.45
Department Satisfaction			4.03±.81

3.2 실행(Action)

간호윤리와 전문직 교과목은 성과기반 강의계획서의 주차별 수업진행계획표에 따라 2019년 3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15주 동안 간호학과 2학년 4개 분반에게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Table 2. Content of Curriculum

Week	Content	Teaching Strategy
1	Orientation, understanding of Ethics	ice-breaking, video, discussion
2	The theory of ethics	lecture, visual thinking, window panning
3	Ethical principles and rules, ethical decision-making model	lecture, visual thinking, window panning
4	A Code of Nursing Ethics and Patient Rights	lecture, visual thinking, window panning
5	Ethics between nurses and partners	lecture, discussion

리적 딜레마 의사결정 모형을 활용한 팀 학습 방법은 만족도가 높아서 수업 운영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 이유는 학생들에게 제공된 윤리적 딜레마 사례, 발표 주제와 내용이 좋았고, 팀원간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 잘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에 대해 보완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나타났다. 그 후 수업 개선 결과보고서(CQI)를 작성하여 향후 교과목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점을 도출하였다. 위의 과정을 포함하여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여 차기 교과목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3.3 평가(Evaluation)

비주얼 씹킹과 윈도우 패닝을 적용한 간호윤리와 간호 전문직 교과목 수업개선의 효과를 윤리적인사결정자신감, 생명의료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의 변화로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연구참여자들의 윤리적인사결정자신감은 32.70 ± 4.66점에서 36.00 ± 5.54점으로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6.748, p<.001$). 생명의료윤리의식은 44.65 ± 6.39점에서 45.31 ± 5.64으로 높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291, p=.199$). 간호전문직관은 3.81 ± 0.98점에서 4.08 ± 0.91점으로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52, p<.001$).

Table 3. Comparison of Ethical Confidence, Biomedical Ethics Consciousness, Nursing Professionalism Scores Between the Pre-test and Post-test
N=114

Variable	Pre test	Post test	t	p
	M±SD	M±SD		
Ethical Confidence	32.70±4.66	36.00±5.54	6.748	<.001
Biomedical Ethics Consciousness	44.65±6.39	45.31±5.64	1.291	.199
Nursing Professionalism	3.81±.98	4.08±.91	-3.52	<.001

학습 결과는 평가기준에 따라 지식은 중간, 기말고사 점수로 평가하였고, 태도는 출석, 비주얼 씹킹과 윈도우 패닝의 결과물에 대한 수시평가로, 기술은 봉사활동 참여 후 작성된 개인의 성찰일지 1회, 윤리적 딜레마 사례 발표에 대한 팀 과제 2회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강의 진행 후 학업성취도는 상 24.4%, 중 75.6%로 나타났다.

Table 4. Content Analysis

Category	Sub-category	Content
Class utilizing visual thinking and window panning	·New experience	“Even though it was class time, drawing and coloring was very fun.”
	·Strange yet comfortable feeling	“At first, I did not know the intention for this work, however as I was working on it I felt like I understand the intentions behind.”
	·Becomes mine	“Unlike woking with friends and discussing, I had around 10 minutes by myself to think and reflect back.”
	·Lack of time	“Time was running out really fast. We had to draw a story by that time, but in reality 10 minutes is short for even reading.”
Ethical dilemma Case study and Teams Learning Using Decision Models	·Systematic case study based on theory	“Medical issues that I had only seen in articles wee vague for me. But as I followed the decision-making model process, I was able to see it systematically based on theory.”
	·Development of cooperation skills through discussion by teams	“If I was alone, I would not be able to finish the tasks. However as we combined ideas and discussed together, we were able to finish works efficiently and the works were fun.”
Case Study of Nursing-Profession Entry in Real Life	·Can learn about different fields of professions	“As I looked through 13 major nursing profession jobs, I realized that the field is broad and felt proud for coming into nursing university.”
	·Can feel proudness	“I thought that everyone who graduates Nursing schools would become nurse, but realized that there are numerous other choices to go.”
Field-linked Volunteer Work in Local Area	·Can use the knowledge learnt	“The volunteer works started to finish my works, however as I wrote reflective journal and learnt about nursing ethics, these works became meaningful.”
	·Can feel ethical responsibility	“I realized I can be a great help for those in need. Additionally, I learnt that in order to help, one needs to also go through great responsibility.”

또한, 간호윤리와 간호전문직 수업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경험은 성찰일지, 질문지의 주관식 답변 등을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하였다(Tabel 4). 학기 말 수업 운영방식인 비주얼 씹킹과 윈도우 패닝을 활용한 방법, 윤리적 딜레마 의사결정 모형을 활용한 팀 학습 방법 등 수업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내용분석을 한 결과, 비주얼 씹킹과 윈도우 패닝에 대한 경험은 신선하고 낯선 경험, 학습한 내용이 내 것이 되어감, 시간 부족에 대한 내용들이 도출되었으며, 윤

리적 딜레마에 대한 사례 보고서 및 의사결정모델을 활용한 팀학습에 대해서는 이론 기반의 체계적인 사례연구 접근, 토의토론을 통한 협력과 조정능력의 함양에 대한 내용이 나타났다. 전문직관에 대한 사례 보고서는 다양한 전문직 분야에 대해 체감할 수 있었고, 자긍심을 느끼게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연계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학습 내용을 현장에 직접 적용해 볼 수 있었고, 윤리적 책임의식을 느끼게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3.4 성찰(Reflection)

연구자가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전년도 CQI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강의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수업 설계, 수업 운영, 수업 성과 및 환류 부분을 성찰하였다. 평가기준에 의하여 지식은 중간, 기말고사 점수로 평가하였고, 태도는 출석, 수시평가(VT,WP)를 반영하였으며, 기술은 개인 과제 1회, 팀 과제 2회로 평가하였다. 전체 수강 학생 160명 중 루브릭에 의한 평가점수가 90-100점(A~A+)에 해당하는 '상'이 39명(24.4%), 70-89점(C~B+)인 '중'이 121명(75.6%), 루브릭에 의한 평가 70점 미만(D이하)인 '하'에 해당학생은 없었다. 모든 학생의 성취수준이 '중'이상으로 나타나 교과목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특히 강의 후 수업의 주요내용을 복습하는 방법으로 비주얼 씽킹(VT), 윈도우 패닝(WP)을 활용하여 이론적으로 습득된 내용을 표현하도록 격려하여 학습내용의 장기기억과 핵심내용 파악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시간 제약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대면 수업의 경우 미리 수업내용을 파악하고, 다음 차시 수업의 키워드 9개를 미리 생각해 오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팀 학습의 경우 동료 평가를 추가하여, 평가의 엄정성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전문직 진출분야는 현재 교과서를 중심으로 기술된 13개의 진출분야 외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간호전문직 분야의 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밀착형 현장연계 봉사활동은 현재 교과목 내에서의 봉사활동으로 국한되어 있으나, 교내 기능특성화 교과목으로 선정하여 서비스 러닝의 형태로도 운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COVID-19 상황으로 인하여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분야까지 비대면 실시간(synchronous) 혹은 비실시간(asynchronous),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등 다양한 형태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25분으로 구성되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에 본 교과목 전반에 적용된

비주얼씽킹과 윈도우패닝 학습법을 활용하여 수업 마무리에 '여러분 각자 진행한 비주얼씽킹과 윈도우패닝을 사진으로 찍어 LMS의 과제방에 업로드하세요.'와 같은 방식으로 과제를 제시하여 학생 참여도를 점검하고, 주의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음 차시 수업 도입 부분에는 학생들의 결과물로 지난 차시의 학습내용을 정리하며, 오늘 수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설명해주는 방법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주의집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비주얼 씽킹과 윈도우 패닝을 적용한 간호윤리와 간호전문직 교과목 수업개선의 실행과정과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통합연구방법(mixed research methods)으로 운영된 실험연구이다. 본 연구는 양적 분석결과와 질적 분석 결과의 비교검증을 통하여 교과목 운영의 효과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비주얼 씽킹과 윈도우 패닝을 적용한 간호윤리와 간호전문직 교과목 수업개선의 실행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실행과정은 교수자로 하여금 학생을 교수자의 일방적인 강의를 수강하는 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며 함께 그 경험을 만들어가는 존재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비주얼 씽킹과 윈도우 패닝을 적용하고, 중간평가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수업개선과 관련된 경험을 귀납적으로 도출함으로써 교수자의 성찰을 통해 수업을 운영하는 역량, 교과목에 대한 통찰력이 높아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비주얼 씽킹과 윈도우 패닝을 적용한 간호윤리와 간호전문직 교과목 운영의 효과에 대한 양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리적인사결정자신감($t=6.748, p<.001$)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다. 생명의료윤리교육의 효과평가에서 윤리적인사결정자신감에 대한 도구가 사용되지 않아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선행연구에서 윤리적인사결정자신감이 윤리교육 빈도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는 결과에 대해[27] 간호윤리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간호전문직관($t=-3.52, p<.001$)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다. 간호전문직관은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28],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생명의료윤리교육의 효과평가에서 사용되지 않았기에 비교가 힘들다[29,30].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의 형성은 과학발달과 생명의료 기술의 변화로 인해 간호현장

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윤리적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환자를 옹호하는 간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개인적인 삶의 질과 간호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31].

생명의료윤리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t=1.291, p=.199$) 이는 생명윤리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비수강학생보다 생명의료윤리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29]. 하지만 간호학과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학점 1시간으로 15주 동안 운영한 정규 교육과정에서 생명의료윤리교육 후 생명의료윤리의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30] 1학년을 대상으로 3학점 3시간으로 운영된 16주 교육과정에서 영화를 활용한 생명의료윤리교육을 시행한 연구에서는[33] 생명의료윤리의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다.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측정도구는 태아의 생명권, 인공수정, 태아진단, 신생아의 생명권, 장기 이식, 뇌사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20]. 교과목 운영에 있어서 간호윤리와 간호전문직관을 15주에 걸쳐 가르쳐야 하는데, 간호윤리에 관한 교육은 7주만에 걸쳐 이루어진다. 간호윤리 교육에서 윤리 이론, 원칙과 규칙, 윤리적인사결정 모형 등을 포함하여 생명의료윤리의식 도구의 하위영역인 8개 영역들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지식은 습득하였지만 단기간에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서도 생명의료윤리의식은 하위영역이 고루 증가하지 않았기에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필요성을 제안한바 있다[32]. 생명의료윤리의식은 윤리적 가치관과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내용을 포함시킨 정규교육과정 외에도 비정규 교내·외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34,35].

본 연구의 질적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난 비주얼 씽킹과 윈도우 패닝에 대한 경험은 신선하고 낯선 경험, 학습한 내용이 내 것이 되어감, 시간 부족 등으로 나타났는데, Baek [36]의 선행연구에서도 비주얼 씽킹을 활용한 교육에 대해 학생들은 흥미로운 학습법으로 인식하였으며 스스로 학습내용을 정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방적인 강의에서 벗어나 스스로 지식을 이해할 수 있어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내용분석 결과와도 유사하다. 또한 Moorman et al [11]의 연구에서는 비주얼 씽킹을 활용한 학습전략이 간호교육의 학습성과로서 환자사정 능력, 분석능력, 인지적 능력, 비판적 사고, 상황에 대한 해석적

능력, 상호간의 협동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주얼 씽킹을 교과서의 지식을 이미지화 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동료와의 토론전략에 접목시켜 활용하였으나 Moorman et al [11]의 연구에서는 퍼실리테이터를 통해 예술작품을 중심으로 사고를 촉진시키는 질문을 사용하여 학생들을 훈련시킴으로써 환자를 사정하고 다학제간 의사소통하는 부분에 대한 관점의 변화, 협동 능력 등을 이끌어 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학습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Moorman et al [11]의 연구에서는 1시간 동안 비주얼 씽킹 전략 세션에 10-15명이 팀을 이뤄서 참여하게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이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수업을 운영하는 교수자 이외에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도와줄 보조 연구원을 배치하고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윈도우 패닝을 활용한 교육은 선행연구에서 잘 다루지지 않아서 추후 연구에서는 비주얼 씽킹과 윈도우 패닝의 차이를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밖에 윤리적 딜레마 사례 활용, 전문직관에 대한 사례 보고서 등의 학습경험은 Ji & Chung [37]의 연구에서도 사례기반학습을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인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Ji & Chung [37]의 연구에서는 사례기반학습의 개선점으로 팀 활동의 어려움, 시간 부족,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 등이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경우는 사례를 활용한 학습경험이 아니라 이미지 기반 학습인 비주얼 씽킹과 윈도우 패닝에 대한 경험에서 시간 부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교수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시간 분배가 사전에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비주얼 씽킹과 윈도우 패닝을 적용한 간호윤리와 간호전문직 교과목 운영이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기반 강의계획서를 기반으로 수업을 설계한 후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 기술, 태도를 포괄한 주차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과목을 운영한 결과 '간호전문직관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직관을 확인한다(PO1)',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을 이해하고 간호 실무에 통합한다(PO2)',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봉사를 실천한다(PO3)', '보건 의료팀 내 구성원과의 협력관계를 이해하고 업무조정 역할을 수행한다(PO5)'의 학습성과를 달성하였다.

둘째, 수업 운영에서 교수자와 학생이 '주체'가 되어서

수업을 개선과정을 함께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전의 교육이나 프로그램과 달리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미지 기반 학습법으로 활용한 비주얼 씽킹과 윈도우 패닝의 결과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자칫하면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간호윤리와 전문직 교과목의 지식습득 영역을 암기가 아닌 창의적인 사고에 기반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임상실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추후 임상실습현장에서도 간호전문직관에 기반하여 올바른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윤리적 딜레마 의사결정모형을 팀 활동을 통하여 적용함으로써 협력과 조정능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수업 평가에서 혼합연구설계의 실험연구방법을 통해 다각적으로 차기 수업의 개선을 꾀하였다. 일반적인 실험연구 설계에서 더 나아가 양적 분석결과와 질적 분석결과와의 비교검증을 통하여 추후 연구를 위해 간호윤리와 전문직 교과목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었고, 교과목 운영의 효과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본 교과목의 수업 설계, 수업 운영, 수업 평가 및 환류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과 수업 차시 내에서의 수업 도입, 전개, 마무리 수업개선을 평가할 수 기회가 되었다.

본 연구는 비주얼 씽킹과 윈도우 패닝을 활용하여 성과기반 간호윤리와 전문직 교과목 수업개선에 관한 실험연구방법을 시도함으로써 학생의 입장과 교수자의 역할에 대해 재정 의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수업개선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과 교수자의 경험과 변화들을 이해할 뿐 아니라 수업운영 방식과 성취수준의 평가 및 환류를 통해 교과목의 질 관리와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기에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며, 실험연구의 특성상 통제집단인 대조군이 없어서 명확한 인과성을 제시하기에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간호윤리와 전문직 교과목 운영과 관련한 실험연구 설계를 통해 반복적인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주얼 씽킹과 윈도우 패닝과 같은 시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한 교수법을 학습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암기할 내용이 많은 전공교과목에 활용해 봄으로써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H. J. Park, "Ethical dilemma of nurs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5, No. 1, pp.128-135, 2009.
- [2] J. H. Sin, S. H. Jung, M. H. Lee, Y. Yang, "Experiences of ethical issues and needs for ethics education in clinical",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21, No. 3, pp.327-339, 2015.
DOI : <https://doi.org/10.1111/jkana.2015.21.3.327>
- [3] M. O. Chang, K. H. Jung, "A study on the effect of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 nurses' nursing professionalism and biomedical ethics on their confidence in ethical decision-making",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alogy, Vol. 9, No. 11, pp.743-755, 2019.
DOI : <https://doi.org/10.35873/aimahs.2019.9.11.067>
- [4]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KABON), Nursing core competencies[Internet].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2 [cited 2020 september 8]. Available from : <http://www.kabon.or.kr/>
- [5] H. Y. Hwang, "The current status and consideration for nursing ethics education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 20, No. 3, pp.305-316, 2017.
DOI : <https://doi.org/10.35301/ksme.2017.20.3.305>
- [6] S. Kim, I. Lee, S. Y. Kim, Y. G. Noh, "Nursing ethics research in korea from 2009 to 2016",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 20, No. 4, pp.406-424, 2017.
- [7] M. S. Choi, "A Study on the design of the consciousness of bioethics' training for nurses", Journal of the Korea Bioethics Association, Vol. 20, No. 2, pp.59-73, 2019.
- [8] Y. M. Kim, H. Park, "Current trends of teaching-learning methods in korean undergraduate nursing educa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No. 3, pp.945-966, 2016.
- [9] M. Moorman, "The meaning of visual thinking strategies for nursing students", Humanities, Vol. 4, No. 4, pp.748-759, 2015.
DOI:<https://doi.org/10.3390/h4040748>
- [10] M. Moorman, D. Hensel, "Using visual thinking strategies in nursing education", Nurse Educator, Vol. 41, No. 1, pp.5-6, 2016.
DOI:<https://doi.org/10.1097/NNE.0000000000000185>
- [11] M. Moorman, D. Hensel, K. A. Decker, K. Busby, "Learning outcomes with visual thinking strategies in nursing education", Nurse Education Today, Vol. 51, pp.127-129, 2017.
DOI:<https://doi.org/10.1016/j.nedt.2016.08.020>

- [12] R. W. Pike, *Creative training techniques handbook: tips, tactics, and how-to for delivering effective training*. Amherst:HRD Press Inc.:1989.
- [13] O. Zuber-Skerritt, M. Fletcher, "The quality of an action research thesis in the social sciences", *Quality Assurance in Education*, Vol. 15, pp.413-436, 2007. DOI:<http://dx.doi.org/10.1108/09684880710829983>
- [14] J. W. Creswell, V. L. Plano-Clark, *Designing and conducting mixed methods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2007.
- [15] D. P. Sulmasy, G. Geller, D. M. Levine, R. C. Faden, "Medical house officers' knowledge, attitude, and confidence regarding medical ethics",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Vol. 150, No. 12, pp.2509-2513, 1990.
- [16] C. A. Laabs, "Confidence and knowledge regarding ethics among advanced practice nurses",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Vol. 33, No. 1, pp.10-14, 2012. DOI:<http://dx.doi.org/10.5480/1536-5026-33.1.10>
- [17] C. H. Kim, *The Relationships among ethical dilemma, professional values, ethical confidence of clinical nurses*, master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2014.
- [18] S. Gorovitz, "Bio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the Monist*. Vol. 60, No. 1, pp. 3-15, 1977.
- [19] Y. S. Lee, "A study of Ethical Values of Korea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20, No. 2, pp.249-270, 1990. DOI: <https://doi.org/10.4040/jnas.1990.20.2.249>
- [20] qS. J. Kwan, *A study on the cons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and medical students*, Master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2003.
- [21] Y. J. Jung,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knowledg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pla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perception of hospice on the attitude toward withdrawal life-sustaining treatment*, Master thesis, Kosin University, Pusan, Korea, 2019.
- [22] E. J. Yeun, Y. M. Kwon,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6, pp.1091-1100, 2005.
- [23] M. H. Kim,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view of nursing as professionalism*, Master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2008.
- [24] K. Krippendorff,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Beverly Hills, CA: Sage:2004.
- [25] S. H. Choi, J. Jung, S. W. Jung, "Concept and procedures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Journal of Qualitative Inquiry*, Vol. 2, No. 1, pp.127-155, 2016.
- [26] E. G. Guba, Y. S. Lincoln,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pp. 103-127. 1981.
- [27] Korean Nurses Association, *Nursing education Learning objective*, Seoul:Korean Nurses Association. 2018.
- [28] C. Grady, M. Danis, K. L. Soeken, P. O'Donnell, C. Taylor, A. Farrar, et al, "Does ethics education influence the moral action of practicing nurses and social workers?", *American Journal of Bioethics*. Vol. 8, No. 4, pp.4-11, 2008. DOI: <https://doi.org/10.1080/15265160802166017>
- [29] M. Y. Moon, "Effects of ethical value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before applying nursing ethics educa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8, No. 9, pp.305-314, 2018. DOI : <https://doi.org/10.35873/ajmahs.2018.8.9.031>
- [30] I. S. Kim, "Effects of bioethics education on the consciousness of bioethics of freshman Nursing and health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Bioethics Association*. Vol. 14, No. 1, pp. 1-13, 2013.
- [31] G. S. Joeng, "The effect of biomedical ethics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freshma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2, No. 3, pp.376-386, 2016. DOI :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3.376>
- [32] E. J. Seo, N. H. Cha, "Relationships among nursing professional values, bioethics and death ethic percep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5, pp.349-358, 2016. DOI : <https://doi.org/10.14400/JDC.2016.14.5.349>
- [33] Y. S. Choi, G. S. Jeong, R. Michong, "Biomedical ethics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The effect on awareness and application of nursing code of ethics,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moral sensitivit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4, No. 3, pp.214-224, 2018. DOI : <https://doi.org/10.5977/jkasne.2018.24.3.214>
- [34] S. Y. Kim, "Effects of biomedical ethics education using movie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7, pp.281-290, 2014. DOI : <https://doi.org/10.5392/JKCA.2014.14.07.281>
- [35] W. J. Kim, J. H. Park, "The effects of an action learning-based nursing ethics education on self-assertiveness and ethical values",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Vol. 24, No. 3, pp.179-186, 2017. DOI : <https://doi.org/10.5953/JMJH.2017.24.3.179>
- [36] M. K. Baek, "A case study on the family and culture class using learner-centric visual thiking."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Vol. 27, No. 4, pp. 349~372, 2019. DOI : <http://dx.doi.org/10.18230/tjye.2019.27.4.349>
- [37] Y. R. Ji, H. M. Chung. "Effects of Case-Based Learning on Task Achievement and Learning Satisfaction in the University Class", *Journal of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4, No. 9, pp. 243-265, 2014.

최 한 나(Hanna Choi)

[정회원]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석사)
- 201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남부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관리, 의료정보, 간호정보

김 수 현(Suhyun Kim)

[정회원]



- 2013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2019년 4월 :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 2019년 5월 ~ 현재 : 남부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건강증진, 다문화간호